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THE BRILLIANT LIGHT

KBS교향악단 제786회 정기연주회

찬란한 빛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 선우예권 Yekwon Sunwoo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 더클래스효성

2023.1.28.(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ROGRAM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16

🕒 32'

E.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1악장 적당히 빠르게 (15')

Allegro molto moderato

2악장 침착하고 느리게 (7')

Adagio

3악장 적당히 빠르게, 매우 강한 악센트를 사용하여 (10')

Allegro moderato molto e marcat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말러 | 교향곡 제5번 c# 단조

🕒 68'

G. Mahler | Symphony No.5 in c# minor

PART I

1악장 장송행진곡 (12')

Trauermarsch

2악장 폭풍처럼 움직이며, 거대한 격렬함으로 (15')

Stürmisch bewegt, mit größter Vehemenz

PART II

3악장 스케르초. 힘차게, 너무 빠르지 않게 (17')

Scherzo. Kräftig, nicht zu schnell

PART III

4악장 아다지예토. 매우 느리게 (9')

Adagietto. Sehr langsam

5악장 론도 피날레. 빠르게 (15')

Rondo-Finale. Allegro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 피에타리 잉किन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

- 그라모폰 지

피에타리 잉कि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잉कि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6월까지로 임기를 연장하였다. 2016년부터는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2/23 시즌에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북독일 방송 엘프필하모니 관현악단, 슈투트가르트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및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의 새 프로덕션을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와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의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젼퍼오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그의 지휘 아래 테너 사이먼 오닐과 함께한 바그너의 아리아들과 관현악곡 앨범, 요하네스 모저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과 브리튼의 첼로 교향곡 음반도 주목할 만하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그프리트 발해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Yekwon Sunwoo, Pianist

피아노 | 선우예권

“그의 연주는 명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황홀하다.” - 뉴욕 타임스
“눈부신 기교와 섬세한 감정으로 관중을 압도했다.” - 워싱턴 포스트

복미 최고 권위의 제15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금메달리스트인 선우예권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수한”(인터내셔널 피아노),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 라는 찬사를 받았다. 파워풀함과 비르투오소적인 면모를 보이는 동시에 “음악의 진실되고 순수한 아름다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워싱턴 체임버 오케스트라, 덴마크 로열 오케스트라, 덴마크 라디오 오케스트라, 마린 알숍 &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휴스턴 심포니,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샌다이 필하모닉, 로열 스코티쉬 내셔널 오케스트라, 포트워스 심포니, 몬트리올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베를린 필하모니, 뉴욕 카네기홀, 런던 위그모어홀,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함부르크 엘프 필하모니, 파리 코르토홀, 도쿄 하마리큐 아사이홀, 아사펜부르크 시립극장 등 유명 공연장에 올랐다.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 아스펜 페스티벌, 서밋 뮤직 페스티벌, 토론토 서머 뮤직 아카데미 앤 페스티벌, 체임버 뮤직 노스웨스트 등의 세계적인 음악축제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금호문화재단과 함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등 투어 연주를 가졌다. 2022년에는 포르투갈 마르바오 페스티벌, 그슈타드 메뉴힌 페스티벌, 팔레르모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선우예권은 반 클라이번 금메달 외에도 2015년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2014년 방돔 프라이즈(베르비에 콩쿠르), 2013년 샌다이 음악 콩쿠르 등 무려 8회에 달하는 국제 콩쿠르 입상 경력으로 한국인 피아니스트 최다 국제 콩쿠르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졸업한 그는 커티스 음악원(세이무어 립킨 사사)에서 라흐마니노프상을 수상하며 졸업했다. 이어 줄리아드 음악원(로버트 맥도널드 사사)에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상을 수상했고, 매네스 음대 전문연주자과정(리처드 구드 사사) 졸업 후 현재 하노버 국립 음대 연주자과정에서 베른트 괴츠크를 사사하고 있다.

2017년 데카 골드에서 라벨의 ‘라 발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소나타 2번 등을 담은 앨범 [클라이번 골드 2017]을 출시했으며, 2020년 데카 레이블에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아다지오, 판타지 등을 담은 첫 스튜디오 앨범 [모차르트]를 발매했다. 2021년 [모차르트]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10개 도시에서의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16

E. Grieg | Piano Concerto in a minor, Op.16

작곡연도	1868년
초연	1869년 4월 3일, 덴마크 코펜하겐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약 32분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1843-1907)가 남긴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이다. 이 곡이 만들어진 시기는 그리그가 찬란한 20대를 즐기고 있을 때였다. 그는 젊은 나이에 자국 노르웨이의 신성 작곡가로 떠올랐고, 다양한 작품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음악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67년에는 소프라노로 활동하던 사촌 누이 니나 하계루프와 결혼했고, 그 이듬해에는 딸 알렉산드라가 태어나기도 했다. 피아노 협주곡은 이런 기쁜 나날들을 보내던 중 탄생한 작품이다.

그 밖에도 이 작품은 사실상 그리그의 첫 번째 대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그는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기 전까지 대규모 작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이올린 소나타와 피아노 소품을 포함한 작은 규모의 작품들은 다수 작곡했지만, 오케스트라가 동반되는 큰 규모의 작품은 드물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아노 협주곡 a단조는 그리그의 음악세계에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 더불어 노르웨이의 감성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작품에는 북구의 공기가 가득 차 있고, 노르웨이의 민속 선율에서 따온 노래들이 흐른다. 이 작품을 접한 프란츠 리스트는 작품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북유럽 감성에 감탄하기도 했다.

넘쳐흐르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이 피아노 협주곡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된다. 팀파니가 롤 크레센도로 오케스트라를 부르며, 피아노는 오케스트라를 뚫고 하행화음을 강력하게 내리꽂는다. 그리그는 터져 나올 것 같은 기쁨과 자신감을 단조의 선율로 표현했다. 이 도입부에서 언뜻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이 스쳐 지나가기도 한다. 심지어 슈만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조성을 공유하고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내 그리그의 DNA가 담긴 음악이 뒤따라오며 작품은 독창적인 영감을 선보인다. 목관으로 제시되는 제1주제는 이미 슈만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이후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대화가 이어지며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도입부의 하행화음이 다시 등장하면서 웅장하게 1악장이 마무리된다.

2악장은 이 작품에서 가장 서정적인 부분으로, '노르웨이의 쇼팽'이라는 그리그의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악장이다. 도입부에 악음기를 장착한 현악기들이 길게 이야기를 펼치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후 독주 피아노가 연주를 시작하고, 같은 주제가 악기마다 번갈아 가며 다양한 색깔로 연주된다. 심상은 점차 확장되며, 마지막에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악장이 끝난다.

바로 이어지는 3악장은 노르웨이의 전통 민속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목관악기가 문을 열면 피아노의 현란한 연주로 악장이 시작된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는 독특한 리듬을 주고받으면서 곡을 진행 시키고, 노르웨이의 이미지들을 하나둘씩 불러온다. 그러던 중 플루트가 제2주제를 청아하게 노래하는데, 이는 오직 그리그만 떠올릴 수 있는 마법 같은 선율이다. 이 주제는 곧 오케스트라 전체로 번져가며 클라이맥스가 형성되고, 이내 작품이 마무리된다.

그리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바흐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 듣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한다면, 나는 음악 안에서 내 고향을 닮은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이유로 이 작품은 초연이 이루어진 1869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노르웨이의 정경은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고스란히 담겼고, 오늘날에도 가장 자주 연주되며 사랑받는 피아노 협주곡이 되었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오늘 공연에 대한 협연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1월 27일(금) 오후 공개 예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말러 | 교향곡 제5번 c#단조

G. Mahler | Symphony No.5 in c# minor

작곡연도	1902년
초연	1904년 10월 18일, 독일 쾰른
편성	플루트4(피콜로 겸함), 오보에3(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3(D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 겸함), 바순3(콘트라바순 겸함), 호른6, 트럼펫4,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심벌즈,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탐탐, 횃, 글로켄슈필, 하프, 현5부
연주시간	약 68분

“교향곡은 하나의 세계와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1907년 헬싱키에서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를 만나 구스타프 말러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말러의 교향곡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다. 말러에게는 교향곡 그 자체가 온 우주였다. 말러가 표현하고자 했던 군대의 나팔 소리, 고요한 밤을 채우는 풀벌레 소리, 썰매방울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천사들이 속삭이는 소리는 모두 음표로 바뀌어 하나의 세계 속에 편입된다. 뛰어난 지휘자이자, 누구보다 말러를 사랑했던 지휘자 마리스 안손스는 이런 말러의 교향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천상에서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작곡가다.”

말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작곡가가 음악으로 온 세상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말러만큼 다채로운 소리로 교향곡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확장한 작곡가는 없었다. 그 중 말러 교향곡 제5번은 그의 첫 번째 교향곡과 더불어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며, 말러가 말한 교향곡의 정의를 충실히 따른다. 교향곡 제5번에는 작품이 완성되던 1902년까지 그가 겪었던 우여곡절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겼다. 1901년에는 심각한 장 출혈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듬해엔 그토록 사랑했던 알마 쉰들러와의 결혼에 성공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부터 사랑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까지, 말러가 느꼈던 감정들은 모두 이 교향곡에 자리 잡았다.

교향곡 제5번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다. 1악장과 2악장이 첫 번째, 정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스케르초가 두 번째, 그리고 4악장과 5악장이 세 번째 파트를 이룬다. 첫 번째 파트는 ‘죽음’이라는 소재와 맞닿아 있다. 1악장은 장송행진곡으로, 무시무시한 트럼펫의 외침으로 죽음의 행진을 알리며 시작된다. 이 동기는 베토벤 제5번 교향곡 ‘운명’의 동기와도 닮아있다. 이어서 트럼펫에 대한 응답으로 기괴한 리듬을 지닌 장송 행진이 시작된다. 이후 트럼펫이 다시 한번 이 동기를 연주하는 데, 현악기군이 격렬한 절망을 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비극적인 정서가 작품을 덮치기 시작한다.

2악장은 1악장의 폭력적이고 절망적인 정서가 그대로 이어진다. 첼로의 고독한 연주가 2악장의 포문을 열고 나면 각종 모티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호른의 장송곡 테마를 시작으로 온갖 캐릭터들이 뒤섞이는 장면은 말러 교향곡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다. 2악장 말미에는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뜬금없이 금관악기들이 승리의 코랄을 연주하

며 시종일관 어둡던 작품이 잠시 빛난다. 작품 전반부를 지배하던 비극이 머지않아 종료될 것처럼 밝은 분위기를 묘사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말러는 비극 뒤에 환희가 오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말러가 생각하는 세계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음악은 다시 원래의 분위기를 찾아가고 고요함 속에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난다.

3악장은 거대한 스케르초다. 말러 교향곡 제5번의 정 가운데에 위치하며 교향곡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밝고 희망찬 호른의 부름에 응답하며 흥겨운 춤곡이 펼쳐지고, 민속 춤곡 랜들러*와 세련된 빈 왈츠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이 스케르초는 교향곡 제5번의 모든 악장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정신없이 쏟아지는 모티브들은 이 악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음악으로 만든다. 실제로 말러는 3악장을 두고 “이 스케르초는 악마적이며, 여러 논란을 일으킬만한 악장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이 악장을 지휘자들이 그저 너무 빨리 연주해서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4악장과 5악장은 앞선 악장들과 다른 분위기를 표현한다. 스케르초에서 이어지는 4악장 ‘아다지오토’는 현악기와 하프르만 연주되는 아름다운 악장이다. 여기서 아다지오토는 ‘아다지오보다 조금 더 빠르게’란 뜻으로, 말러가 그의 부인이 될 알마에게 보내는 연애편지와 같은 악장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말러는 아무 말 없이, 4악장의 악보를 알마에게 보냈다. 말러의 음악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의 악보 필사를 여러 차례 돕기도 했던 알마는 이 음악이 곧바로 자신을 향한 연애편지임을 알아챘다. 알마는 이에 화답하며, 이 둘의 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작품을 단순히 연애편지라고 보기만은 어렵다. 말러가 그의 가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를 4악장의 선율 위에 덧칠했기 때문이다. 비관적인 미래와 고독을 노래하는 이 곡은 아다지오토 악장에 씩씩한 맛을 더한다. ‘나는 나의 천국에서 홀로 사노니. 내 사랑 안에서, 내 노래 안에서’라는 가사를 암시하며, 모든 것이 사라지듯 매우 여린 음으로 악장이 마무리된다. 이 아다지오토 악장은 이탈리아 감독 루키노 비스콘티의 영화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 사용되며 인기를 끌었고, 최근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도 삽입되었다. 그 밖에도 광고 등 여러 매체에 자주 등장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4악장은 종종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연주되기도 한다.

마지막 악장인 5악장은 환희에 가득 찬 분위기로 시작한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향하는 교향곡들과 언뜻 비슷해 보인다. 2악장에 잠시 등장했던 코랄이 다시 사용되며, 작품 곳곳에 강렬하고 눈부신 빛이 드리운다. 게다가 작곡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폴리포니**가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한다. 말러는 이 작품을 작곡하던 당시 바흐에 매료되어 있었다. 바흐의 악보를 들여다보며, 온종일 그의 음악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제 작품은 클라이막스로 향하는데, 아다지오토 악장을 이끌었던 달콤하면서도 씩씩한 주제가 이제는 경쾌하게 지나가고, 찬란한 결말을 맞이한다.

교향곡 제5번의 초연은 1904년 10월, 독일 쾰른에서 말러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작품은 말러가 기대한 만큼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때문에 이 곡은 말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없이 개정되는 운명을 맞는다.

글 | 허명현(음악 칼럼니스트)

* 랜들러(Ländler) : 19세기 오스트리아 및 독일 남부에서 유행했던 민속 무곡으로, 쾌활함이 특징
** 폴리포니(Polyphony) :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멜로디가 동시에 배치되어 서로 어우러지는 다성음악



KBS교향악단 신규단원 채용

국민의 오케스트라를 함께 이끌어 갈 주역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제1바이올린 : 악장(1)
- 제2바이올린 : 부수석(1)
- 더블베이스 : 단원(2)
- 호른 : 수석(1), 단원(1)
- 타악기 : 수석(1) - 팀파니 부수석 겸직

